

대한광장

'개네들' 용병 비하 유감



설 동 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용병(傭兵·mercenary)이란 '보수를 받고 복무하는 군인'을 가리킨다.

용병은 고대와 중세에 걸쳐 자국민의 보호나 부족한 병력의 보충을 위해 널리 활용됐으나 프랑스혁명 이후 실시된 징병제도에 의해 시민적 상비군이 생겨나면서 자취를 감췄다.

용병은 충성심이 부족하고 자질이 낮으며, 물질적 보상이나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소속을 바꾸는 단점이 있다. 또 대부분 외국인으로

자국 군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거나 협동작전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용병이라는 용어 속에는 비하적인 어감이 스며있다.

국내 언론은 프로 야구·농구·축구·사이클 등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들을 용병이라 부른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야후! 국어사전'에서는 용병을 '고용한 군사'뿐 아니라 '스포츠에서 팀의 전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 데려온 선수'까지 포괄해 정의한다.

설기현·박찬호·김병현도 용병

운동선수를 지칭하는 용병이라는 말에는 그들을 단기간 사용하되, 실력이 소진될 경우 일회용품처럼 폐기할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그들을 결코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이 용병이라는 말로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바꿔 생각해 보면 사정이 간단치 않다. 국내 프로야구 팀 두산 베어스의 타이론 우즈, 프로축구팀 성남 일화의 사샤 선수가 용병이라면 미국

프로야구팀 텍사스 레인저스의 박찬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김병현과 일본 프로야구팀 오릭스 블루웨이브의 구대성, 벨기에 프로축구팀 안드레흐트의 설기현 선수도 용병이다. 만약 미국 언론이 박찬호 선수를 '한국인 용병'이라고 부른다면 상당수 한국인들은 분개할 것이다.

용병타령은 선수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내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월드컵에 참가한 32개팀 가운데 8개 팀에서 '용병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거스 허딩크(네덜란드), 일본의 필리프 트루시에(프랑스), 중국의 보라 밀루티노비치(유고), 잉글랜드의 스펠 고란 에릭손(스웨덴) 등이 모두 용병감독이다. 선수뿐 아니라 감독조차 용병으로 간주한다면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음악감독을 역임했던 정명훈도 용병이고, 최근 국내 대학들이 앞다투어 모시기 경쟁을 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들도 용병이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용병이라는 단어는 시대착오적이다. 용병타령은 20세기 피압박민족으로서 한국인이 가졌던 열등감의 잔재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끼리 외국인을 낮추어 말하거나 '개네들' '해네들'이라는 식으로 비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식의 태도로는 심리적 위안조차 찾을 수 없다.

지구화된 사회의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국은 우수인재를 확보하려고 분투한다. 거의 모든 나라는 외국인재유치(brain gain)를 통해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을 보강하려 몸부림치고 있다. 한국축구는 거스 허딩크 감독을 영입함으로써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소아병적인 자세 이전엔 버릴 때

세계적인 명문 프로축구팀들은 막대한 몸값을 치르고서라도 외국인 스타선수들을 꾸준히 영입하려고 노력한다. 이탈리아 유벤투스는 프랑스인 지단, 이탈리아 인터 밀란은 브라질인 호나우두,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는 포르투갈인 피구를 스카우트했다. 그 팀들은 소모품 용병이 아니라 스타선수들을 길러 정상에 서려고 노력한다.

이번 FIFA 월드컵을 통해 한국인들은 40여년 사이에 이뤄낸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10여년 만에 달성한 정치적 민주화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문화적 발전의 잠재력을 전세계에 자랑해야 한다. 동시에 이 기회에 우리보다 좀 더 잘난 외국인에게 주눅들어서 그들을 말로 학대하며 위안을 찾으려는 소아병적 자세는 확실히 버려야 한다.